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024년 02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특히, 비교적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과 함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astspring Investments-Asian Equity Income Fund)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0,105,947원

-모투자신탁 4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등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09월 01일)

- 클래스 A : 2014년 09월 01일

벤치마크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Index(USD) 95% + Call Loan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91.1%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9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10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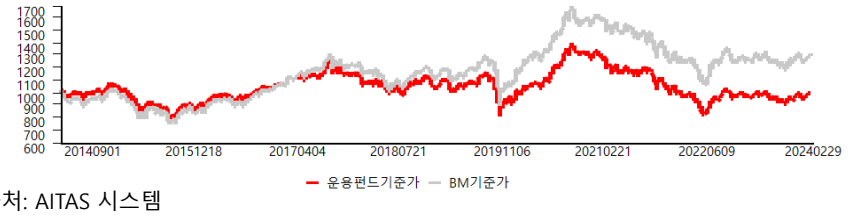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80%	3.61%	1.92%	2.84%	-12.81%	-28.28%	-9.91%	-1.63%
클래스 A	1.71%	3.31%	1.34%	1.65%	-14.82%	-30.77%	-15.05%	-12.01%
벤치마크	3.68%	4.08%	3.62%	4.87%	-6.32%	-20.28%	12.88%	3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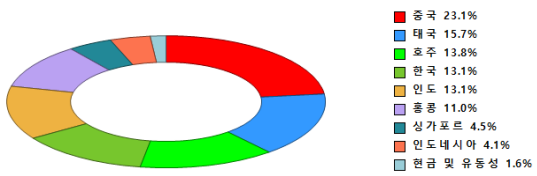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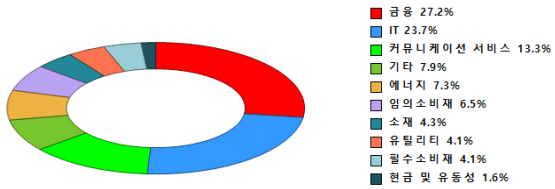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02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국가별 비중>



<자산배분 현황>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02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종목명	비중(%)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9.7
SAMSUNG ELECTRONICS CO LTD	5.9
TENCENT HOLDINGS LTD	4.5
BHP GROUP LTD	3.7
RELIANCE INDUSTRIES LTD	3.1
CHINA CONSTRUCTION BANK CORP	3.0
AIA GROUP LTD	3.0
NATIONAL AUSTRAILIA BANK LTD	2.9
MACQUARIE GROUP LTD	2.8
UNITED OVERSEAS BANK LTD	2.4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024년 02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175% (판매 0.7%)

(공통사항)

운용 0.425%, 신탁 0.035%,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2월 아시아퍼시픽 시장은 펀드의 비교지수인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quity index USD 기준으로 4.5%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민은행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25bp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중국의 2월 통계국 제조업 PMI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49. 1를 기록하였고, 비제조업 PMI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한 51.4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세안 증시는 아시아 및 이머징 대비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필리핀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낸 반면, 태국 증시는 경제성장 둔화 전망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도에서는 중앙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인도 증시는 USD 기준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호주 증시는 USD 기준 약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수익률은 MSCI USD 기준입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유럽 및 중동발 지정학적 갈등이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증시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미 연준의 완화적인 태도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펀드에서는 중국 경제회복 속도와 정부의 부양정책을 주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벨류에이션 매력도가 낮은 인도와 호주에 대한 투자비중은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둔화 국면에서의 아시아 배당주는 방어적이고 매력적인 투자라고 판단합니다.

펀드매니저는 개별 주식 단계에서 성장성, 유동성, 배당 성장률, 배당 지속성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시아 증시에서 높은 배당수익률을 지닌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